15과 오래참은 이삭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천국갈수 있는 담대한 소망을 안고 살아갑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교사라는 귀한 직분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영혼들을 저희에게 맡겨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또 너무나 지혜없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저희에게 때에 맞는 말씀과 또 지혜를 또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양육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과 어떻게 교제할지를 알려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우리 선생님들 믿음이 더욱 성장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4절까지 찾으셨으면 한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2.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3.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4.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오늘은 오래참은 이삭이라는 제목으로요, 같이 교제 나누고자 합니다

이삭에 대한 공과가 처음이기 때문에요, 이삭에 대한 특징들을 몇가지 나눠드린 유인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초기 믿음의 조상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지만 성경에는 가장 적은 내용이 기록된 사람이 바로 이삭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175세, 야곱은 147세 요셉은 110세 이삭은 무려 180세 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삭의 삶이 가장 적죠

그리고 온전하게 이삭의 삶만 나타내고 있는 장은 26장 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중에서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서만 살았던 사람이 이삭이고요,

아버지 아브라함 보다 믿음의 승리의 경험이 적었고, 또 아들 야곱보다도 실패했던 경험이 적습니다.

그니까 인생가운데 특별한 굴곡이 없었어요 그래서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삭을 성경에 기록을 해놓으셨을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브라함과 야곱은 좀 이해가 되요. 인생 자체가 드라마틱 했고

하나님이함께 하신다라는게 보여지잔아요

그런데 이삭은 너무 평범해요 근데 왜 그 이삭을 아브라함과 야곱과 함께 같은 그 위치에 올려놀까,

이삭은 어찌보면 우리하고는 아주 비슷한 상황에 있기도하죠.

우리 이제 간증듣다보면 간증하시는 분들가운데 그런분들 있잖아요

내가 정말 암에 걸렸는데, 또는 큰 병에 걸렸는데 기적적으로 그 병이 치료가 됐다고

또는 교통사고가 났는데 차는 폐차 당하고, 자기는 타박상 정도로만 끝났다고

그런 간증들 가끔 듣다보면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신다 저 형제하고는 저 자매하고는.

그런게 이제 느껴지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왜 내 인생에는 그런 일들이 별로 없을까

그런데 사실 그런일이 있는게 좋아요 없는게 좋아요

사실은 없는게 좋죠

그니까 이삭인생 가운데는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야곱처럼 그런 엄청난 일들은 없었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형제자매님들이 인생가운데 뭐 특별한 일이 있는건 아니잖아요

우리 자매님들,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 가서 교회왔다가 집에가고 . 특별히 그거외에 달라지는거 별로 없잖아요

대부분의 삶이 그러죠

그런데 이삭이 딱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 이삭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나 야곱처럼 앞에서, 앞장서서 일하고 뭐 뛰어난 일을하고 인생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는 거를 피부적으로 느낄수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이삭 처럼 지극히 평범한 사람하고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래서요, 이 이삭의 삶을 가만히 보면 지극히 평범하게 사는 우리들이 어떤 교훈을 받을수 있을지 이제 알게 됩니다.

창세기 26장을 제목을 붙이면요, 이렇게 붙일수 있어요 그랄에서 브엘세바로.

이 브엘세바는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왕하고 약속을 하고, 맹세의 우물을 팠던곳, 거기가 브엘세바 잖아요

근데 이 이삭이 흉년이 또 드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또 애굽으로 내려갈려고 해요

그러다가 그랄이라는 지역에 머물렀고, 하나님은 그랄에 머무른 아브라함에게(이삭을 잘못말하신듯) 애굽으로 가지마라 말씀을 하시고 다시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브엘세바로 이삭을 다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이삭의 인생가운데는 이제 더 이상 다툼이 사라져요

그전까지는 이삭이 우물파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또 메우고 다투고 이랬는데요,

그 브엘세바로 다시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다툼을 다 그치게 합니다

그래서 26장의 제목을 붙이면, 그랄에서 브엘세바로.

유인물 1번 보겠습니다.

시험받는 이삭. 약속의 땅을 떠나는 이삭.

예 아까 읽었던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 흉년이 들자, 아버지 처럼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 가려고 하죠

자 이 이삭이 흉년이 딱 드니까요, 너무나 쉽게 먹을꺼 있는 애굽땅으로 내려가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누구한테 영향 받았을까요

당연히 아버지 한테요.

그니까 자녀는 부모에게요, 좋은 걸 영향 받기 보다는 안좋은 거를 더 빨리 쉽게 영향을 받아요

학생들도 선생님의 좋은 점보다는 안좋은거, 이런거를 더 빨리 영향을 받습니다

동료 선생님들끼리 중에서도요 교회 학교 안에서도 임원이 있잖아요,

그 임원들이 안좋은 점을 다른 선생님들이 더 빨리 쉽게, 해요

내가 잘한거는 생각 안하시고 꼭 이제 뭐예요, 야 우리 반장도 늦게 왔는데 나도 뭐 어때. 뭐 이런거있죠

그래서 선생님또는 부모님 입장에서요, 어떤 모습이 보여지는가가 교육에엄청 큰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삭이 애굽땅을 향해 내려갈 때, 그랄이라는 지역의 땅으로 오니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마라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거하라 그러면 내가 네 아버지 한테 했던 모든 약속을 다 들어주고, 이삭의, 너의 하나님이 되줄게 약속을 하죠

이 그랄 지역이 어디냐면요, 가나안땅과 애굽땅의 경계선쯤 되는 곳이예요

그니까 조금 더가면 애굽땅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라고 막으신거죠

흉년이 드니까 이삭이 내려갑니다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 하다보면, 바람이 불어요

나무로 치면, 바람이 불때 나무가 흔들릴수는 있잖아요, 그러나 그나무가 뿌리가 뽑혀버린다라면 그 나무는 평소에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되는 자기의 역할을 잘 못 한거죠

이삭에게는 흉년이라는 바람이 불었는데, 흔들리다 못해 뿌리가 뽑힐만한 상황까지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고요, 감당치 못할 때에는 피할길을 주신다고 그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뽑히지 못하도록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딱 막아주시죠

그래서 이 이삭이 이제 그랄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속하긴 하지만 애굽에는 훨씬 가까운 그 경계선 지역쯤에 이 이삭이 이제 자리를 차지 합니다

3절한번보시죠. 아 2절부터 볼께요

2.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3. 이 땅에 유하면 이 유한다 라는 뜻은요, 잠깐 머무른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그랄지역에서 흉년을 피할시간 정도만 잠깐 머물러라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하냐면요, 6절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이삭은요 그 그랄땅에 유하는게 아니라 거할려고 맘을 먹었어요

거한다라는 말은요 거기다가 터전을 두고 산다라는 얘기죠

그니까 이 이삭이 하나님은 잠깐만 머물러라 얘기를 했는데 이 이삭은 거기서 살 생각을 한거죠

그래서 이 이삭에게는 이제 앞으로 순탄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하나님말씀에 불순종 하니까요.

그다음 있었던 일이 뭐냐면, 자기의 아내를 자기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부인이라고 얘기를 못하고요, 누이라고 속이죠.

근데 아비멜렉 왕이 그 이삭이 그 리브가를 끌어 안고있는 장면을 보고 , 오 부인이네. 그걸 알아버리잖아요

우리가 이제 리브가라면요 어떤 마음이였을까요

이 리브가도 자기 시아버지가 했던일을 알꺼잖아요. 마음이 어떨까요

어떻게 닮을게 없어서 그런걸 닮냐. 아마 제일 큰 상처 받은 사람이 리브가였을꺼고, 그다음은요 .

그 모든게 들통났을때 이삭도 마음가운데 상당히 창피해하고 부끄럽고 막 그랬겠죠

우리가 하나님이라면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난 삶을 살고 있는 이삭.

그리고 그 경계선 애굽땅과 가까운 그 근처에서 살고 있는 이삭.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같다라면 분명히 이제 벌을 줄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리브가를 누이라고 까지 속였던 그 이삭에게 벌을 주기는 커녕요, 오히려 축복을 합니다

한번 보죠.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므로

근데 오히려요, 이삭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셔가지고요, 농사를 지어서 백배나 수확을 거둬들이게 합니다

이건 명백하게 축복이잖아요

아니 왜 하나님은 이삭이 그 애굽땅 가까운데서 살고, 그 애굽은 세상을 뜻하니까요,

세상과 가까운데 살다보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세상으로 갈수밖에 없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조카 룻이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땅에 내려갔다가 왔는데 아브라함은 애굽땅에 내려갔다 왔어도, 마음속에 그 애굽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룻은 애굽의 도시생활을 맛보고 나니깐, 그 삼촌과 함께 장막 치는 생활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도시 생활이 너무 그립죠. 그래서 양들을 데리고 들판으로 나갔을때, 멀리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면서 야 저 땅이 내가 바로 살아야 될 땅인데 . 그런마음을 먹고 결국은 삼촌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 이삭이 그 애굽과의 경계선 지역에 사는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이삭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 우리같으면 따끔하게 혼내서 정신 차리게 만들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이삭에게 축복해 주셨을까.

첫째는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같으면 따끔하게 벌을 줘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더 축복해 주시는거예요

잠언 말씀에도 보면, 칭찬으로 사람을 연단한다라고 그러죠

누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아 형제님은 아침에 교사모임 말씀 들으러 올때 정말 제일 빨리 오시는 분중에 한분인거 같다.

어쩌다가 그날 아침에 하루 일찍 왔는데

그런 칭찬을 들으면, 이제 마음속에 어떻게 되요. 그 칭찬이 자기를 연단하잖아요

아 나는 어쩌다 한번 오늘 일찍 왔는데, 그 칭찬을 듣고 나니까 그 다음주 어떻게 될까요 .

일찍오게 끔 되잖아요

이같이 칭찬으로 사람을 연단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벌을 줘야 되는 상황에서

도요 , 오히려 축복을 하셔서 그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좀 깨달아라 , 그리고 하나님은 이 축복을 통해서 한가지 일로 또다른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이삭이 여전히 그런 아비멜렉 왕에게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단걸 들켰으면 우리같으면 창피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를 떠나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이삭을 부하게 만들어서요, 그 주변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게끔 합니다.

한번 보죠. 13절

13,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14.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15.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16.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17.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이삭이 어디로 떠났어요? 그랄이란 지역에서, 그랄 골짜기로

조금밖에 안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을 부하게 만들어서요, 그 주변 사람들이 시기하게끔하고, 떠나가게끔 만들어가지고, 그이삭을 결국은 브엘세바라는 이삭이 맨 처음 출발했던 그곳으로 데리고 가고 싶어하셔요

그런데 이삭은 아직도 그랄 골짜기로, 그정도 까지 밖에 안가죠.

그래서 죄가 얼마나 무섭냐면요, 이 죄는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이 너무 쎈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이 너무 쎕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가운데 죄가운데서, 냉정하게 돌아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붙잡죠

이삭은 아까 하나님이 말씀 하셨던 것처럼 그랄 땅에 잠시 머물렀다가 브엘세바로 돌아가서 살아야 되요. 그니까 이 그랄 땅은 잠시 사는 삶이예요

나그네, 또는 이제 그지역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삭은 외국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렇게 하질 않죠.

두 번째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외국인 나그네 임을 생각해야됩니다.

그런데 이제 노숙자하고 좀 틀린거예요. 노숙자는 갈곳이 없고 목적이 없는게 노숙자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나그네죠. 외국인이죠. 그니까 돌아가야될 고향이 있고요, 돌아가야될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인이 노숙자처럼 살면 안되죠

뭔가 하루는 무지하게 바쁘게 보냈는데, 하루를 마치고 나면, 자기 신앙에 남는게 아무것도 없는거예요.

바쁘긴 엄청 바빴는데. 그 노숙자 처럼 살면 안되죠

나그네는 힘들어도 견딥니다. 왜냐하면 현제 있는 곳은 정착지가 아니라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이죠

또 나그네는 외롭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여행길에 받게 되는 위로가 큰 힘이 됩니다.

특히 선생님들은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로 서로 봉사하는 가운데 위로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 선생님들의 위로 하나가 정말 클수 있어요

또 학생들에게도요, 지적하고 너왜 이거 안해왔어, 머릿돌 암송 왜 안했어. 왜 이런거 라기 보다는요,

그 학생들을 위로 해주는게 더 큰 힘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나그네는 가난합니다. 그래서 여행길에 받은 작은 호의도 너무나 감사한거예요

그래서 베풀기를 힘써야 됩니다

어떤 선생님은요, 그 초등부 저학년을 맡은 선생님인데, 항상 주머니에다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마이쮸 사탕 이런걸 넣고 있는거예요

그래서 자기 분반아이 뿐만 아니라 교회학교 그 쪼만한 아이들이 이제 교회에서 떨어진 휴지를 줍고 암송을 잘해오고 막 이렇게 했을때 이렇게 하나씩 주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영적으로 아직 신앙이 성장한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주는 사탕이나 마이쮸 이런걸 받기 위해서라도 교회에서 떨어진거 줍고 인사도 잘하게 되고 또 암송도 해오게끔 할려고 노력도 하고 그렇게 되죠

어렸을때는 그게 이제 가능하죠

그래서 베푸는게 선생님들은 언제 어디서든 베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요

나는 일년동안 우리 분반 아이들한테 베푼게 하나도 없다.

나는 내 주변 선생님들한테 베푼게 하나도 없다. 그 선생님은 조금 반성해야되요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가니까요, 여행객이 돈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도와주고 베풀어주는 호의가 여행객 입장에선 엄청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베푸는 삶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해야 됩니다

또 나그네는요, 아무리 멋있는 집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마음을 많이 뺏기진 않죠. 뺏기긴 하겠죠, 근데 많이 뺏기진 않죠

그리고 나그네는 무거운 것은 내려놓고요, 휴대가 편하면서도 꼭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다니죠

여행할 때 무거운거 들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필수적인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말씀이나, 기도 이런 신앙의 필수적인 것을요.

그리고 여행길에는 방해되는 것들이 있죠.

여행을 하다보면 내 마음에 꼭 드는 곳이 있죠

편하게 또는 한 곳에 머무르고 싶은 마음,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그런 욕심이 우리 마음가운데 올라와요

교사 봉사도 조금 하다보면, 내가 이정도 하면 됐지.

더 이상 이제 성경을 많이 연구하지도 않습니다.

학생들에 대해서 기도도 안해요

토요일쯤에 내일 해야될 공과제목 딱 보고, 이거 작년에도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한번 해보지 뭐.

그렇게 안주할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피하라. 라고 얘기를 하시죠

또 본향에 대한 그리움이 사라질수도 있어요

내가 가야될 천국 에 대한 그리움이 사라지면 신앙생활의 기쁨이 사라지고요, 현실에 안주하게 됩니다.

또 여행길에는 나쁜 동행자를 여행 동무로 삼을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여행길 내내 불편한거예요

그리고 그 잘못된 여행 그 동료 때문에 잘 못된 길을 갈수도 있고, 물질적인 손해도 볼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때요, 좋은 신앙 친구를 만드는게 필요합니다

내가 힘들고 정말 어려울 때 가서 내 힘든것들을 얘기해줄수 있고 또 위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좋은 친구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때까지 내 옆에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이삭에게 나그네로서의 삶을 알려주셨고요,

그런데 그 이삭은 이제 빨리 브엘세바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랄 골짜기 정도 밖에 안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랄 골짜기를 떠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아 18절.

18.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

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19.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20.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섹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고로 그 이름을 싯나라 하였으며
22.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23.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자 이삭이 제일먼저 팟던 우물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죠

근데 그거를 블레셋사람들이 다 막아버려요.

이삭 입장에서 보면요, 야 이거 원래 우리 아버지가 팠던 우물이니까 이건 내꺼야, 충분히 소유권을 주장할만도 해요

근데 이삭은 어떻게 했죠? 다투질 않고요 피합니다. 가서 또 파죠

팠더니 또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인들하고 또 다투는거예요

우리가 이삭 입장이라면요, 야이거 정말 너무하네 ,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재판 걸만도 하잖아요

이거 내가 판건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시 메웠다고, 참 못된 사람들이라고.

우리도 살다보면 이런일 겪을수있죠. 사기를 당할수도 있고요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할수도 있죠

신앙생활하면서도 억울한 일 당할수도 있죠 ,.

그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될까. 이삭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삭은 다투지를 않고요,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해야될 일을 묵묵히 한거예요

그 당시 우물은요, 그 광야에서 우물이 없으면 살수가 없죠, 물이 없는 거니까.

이거는 생명하고 바로 직결이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삭은 그 우물을 막을 때마다 옮겨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이제 르호봇이라는 곳에서는 이제 더 이상 다툼이 없는거예요

그랬더니 이삭이 그 르호봇이라는 지역에 가만히 있지 않고요, 같이 읽었던 말씀처럼 브엘세바로 올라 갑니다.

그 옛날 아버지 아브라함이 맹세의 우물을 팠던 그 브엘세바로 올라가자. 그랬더니 어떤일이 생기냐면요.

26절.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훗삿과 군대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방이이였던 아비멜렉과 그 친구와 군대 장관이 야 이삭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게 확실해. 라고 얘기를 한거예요

근데 이삭이 도대체 뭘 했길래 이방인들이 이삭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볼수 있었을 까요

이삭이 한일은 첫 번째, 우물 판거 밖에 없어요

그러죠. 그다음에 두 번째, 우물 파가지고 그 뒤에 브엘세바로 올라간거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이삭이 우물을 팔때마다요 이삭은 오래 참았죠

자기가 소유권을 주장했을도 있는 상황이고, 싸워서 뺏을수도 있는 상황이였고, 얼마든지 그럴수 있었는데 이삭은 오래 참은 겁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본거예요

아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그 당시 우물은 생명과직결되는 건데도 그걸 메우는데도 저 이삭이 참고 또 이동하는데마다 가서 팠는데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이삭이 파기만 했는데 우물이, 물이 막 나옵니다. 이게 우연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 모든 모습을 통해서 야, 이삭은 이삭이 믿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이구나 그걸 알게 된거예요

그리고 또한가지 이삭은 브엘세바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곳.

그곳에 이 이삭은 올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요, 교사로서 마땅히 해야될 일이 있습니다.

이삭은 우물을 팠던 것처럼요, 교사도 마땅히 해야될 일을 해야되요

우물은요, 파면 물이 나오죠 . 계속 솟아 나오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시잖아요

그니까 우리들은 우리 선생님들은 예수님을 부지런히 파야됩니다.

예수님을 부지런히 판다는 말은, 예수님을 깊이깊이 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솟아나는 샘물이 나오는 것처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필요한 힘들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한가지 이삭이 브엘세바로 갔던 것처럼요, 선생님들은 있어야 할곳에 있어야 되요

주일날 아침 8시 50분이면 어디와있어야 될까요, 어디요, 중강당에 와서 말씀을 들으셔야 되겠죠

학생들과 11시에 딱 오면 되요 안되요. 안되죠.

학생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죠? 10분전에라도 와야된다 얘기하죠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아침에 말씀들으러 주일날 오실 때 10분전에는 중강당에 와 계신가요

또 금요일날 교사교육할 때 내가 있어야 할곳은 어디예요, 교사 모임 하는 장소.

그리고 주일날 교회학교가 진행될 때에는 다 어디가있어야 될까요.

그 교회학교에 가있어야 되겠죠

그니까 선생님들이요 최소한 결석만 안해도 그 선생님은 충분히 학생들로 하여금 우리 선생님 최고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결석만 안해도요.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게 뭘까요. 분반 안하는거. 아니 합반하는거. 합반하는거.

그래서 선생님들이 결석하면 안되요

자 우리 2번째 페이지 3번입니다. 떠나는 이삭.

이삭이 그 그랄에서 떠나게된 이유가요, 이삭의 강성함을 시기하여 블레셋사람들이 떠나라고 하죠

세상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받은 영적 축복보다는 겉에 보이는 물질적인 축복에 더 많은 관심을 보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백배나 농사가 잘되고 짐승들이 많아지니까 그걸 시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적인 내면의 축복을 볼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요.

예를 들면 내가 직장을 옮기는데, 저 직장으로 옮기면 연봉이 1000만원이 올라가요, 근데 단점은 주일날 격주로 출근을 해야되요.

그 얘기는 교회학교 봉사를 할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내가 교회학교 선생님이라는 봉사를 위해서 그 직장은 포기합니다.

단적으로 겉으로만 보면 뭐예요, 연봉 1000만원이 더 올라가는 걸 포기한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러나 그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엄청난 신앙적인 유산을 갖게 된거죠.

앞으로 또다른 선택의 시간, 유혹의 시간에 섰을때 그분은 좀더 쉽게 하나님을 선택할수 있을 겁니다.

이 영적으로 받은 축복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하나님께 받는 영적인 내면의 축복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번 떠나야 한다. 이제 밑에 보면요, 봉사를 해도 가장자리에 서지말자. 쫌 힘들면 그만두지 뭐. 가서 찬양대 하지뭐. 새신자부 가지 뭐.

이런거 말고요, 내가 있어야 할곳 ,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곳. 그곳 브엘세바에 그곳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것을 생각하라 라는 겁니다.

이삭이 여전히 그랄 땅에 있을 때에는 계속 다툼이 있었죠.

그러나 브엘세바로 돌아 왔을 때에는 모든 다툼이 끝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다시한번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물 파니깐, 또 우물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했죠.

봉사할때도요, 가장자리, 그니까 혹시 우리중에도 마음가운데 몸은 여기에 있는데 마음은 그랄인 분들이 있을 꺼예요

여차하면 애굽이랑 가까운 그랄인것처럼요, 여차하면 가서 전도사님하고목사님하고 상담하고 내년부터는 다른 봉사 해야지뭐.

이런 마음을 먹고 있다던가.

불가피한 사정이라면 와서 교제 하셔야죠. 왜 그런게 아니라면요 정말 나는 지금 내 영적인 상태는 그랄에 있는가. 브엘세바에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요.

3번째 페이집니다.
3번째 페이지, 위에서 쭉 내려다보면 손가락 표시 있죠. 나머지 부분들은 한번 읽어보셔요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것 중 한가지는 잘 참는 것이다.

기다림을 잘하는 사람은 성공한 신앙이다. 오래 참지 못한 사람들의 대표가 사울이였다.

그래서 오래참지 못하는것,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것과 똑같은 것이다.

성경한번 찾아볼께요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22.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사울이 불순종했죠

그런데 그 불순종한 원인이뭐죠. 사무엘이 오는 시간까지 기다리지를 못하죠. 그니까 기다리지 못한것이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거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니까 신앙생활 가운데요 잘 참고 잘 기다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최고의 열쇠입니다.

최고의 키입니다

그래서 오래참고 기다릴줄 아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할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참긴 참는데 얼마나 참아야 될까.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언제까지 참으래요, 주님이 다시 오실때까지.

그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내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되요,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약5:7절중)
8.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죠. 왜요. 가을에 거둬 드릴것을 생각을 하고 뿌리죠

그것 처럼요, 그리스도인이 왜 참을 수 있을까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때 상급이 있다라는 것을 아니까요

다른 어떤 봉사보다도요 신경이 많이 쓰이고 힘든 봉사중에 하나가 교회학교 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왜 할까요, 상급이 있을 꺼니깐요

성경에 보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라고 하죠

그것처럼요 교회 안에 봉사하는 곳마다 그 하나님 앞에 상급은 다 다를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성경 구절이 놀라운 거는요, 별과 별도 다르다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같은 교회학교로 봉사하고 있는데 같은 교회학교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섰을때 상급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게 받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요, 길이 참을수가 있죠.

4번째 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브엘세바로 돌아간 이삭의 결과.
원수와의 화목.

그 우물을 메꿨고 그랄에서 쫓아냈던 그 아비멜렉 왕이 직접 와서 이삭과 함께 이제 화평하자.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브엘세바로 돌아간 이삭에게는 원수와도 화목해지는 그런일이 발생합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 보면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삭이 아까 했던 거는 우물 판거하고 브엘세바에 간것 밖에 없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그 원수들이 와가지고 화목하자 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속한 환경이나 나의 노력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브엘세바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곳이였고요, 그곳에 이삭이 다시 돌아가서 재단을 쌓고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딱 서버리니까 그 원수들하고의 관계가 딱 펴지는 거예요

전도서 7장에 보면 ,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펼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펼수 있죠, 하나님이 굳게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요, 그 브엘세바 우물을 다시 팠는데 거기서 다시 물이 나왔죠.

가족전도도 해야 되겠고, 분반학생들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또 직장생활이나 학교생활등에 있어서 많은 기도제목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것들을 해결할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내가 있어야 할곳에 참으면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브엘세바로 와서 우물을 팠더니 그곳에서 살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우물에서 물이 솟아나게 해주셨죠

그것처럼 내가 속해있는 곳에서 내가 해야될 봉사를 묵묵히 할때 하나님께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십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선생님들도요 내가 있어야 될 브엘세바가 어딘가를 잘 생각해야되요

요한계시록에 그 에베소교회에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교사로 봉사하는 가운데 정말 교사모임이나 교회학교 시간이 진행되는 시간에는요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있어야 할곳에

그리고 구역모임을하면 구역모임하는 장소에 가 있어야 되겠죠

제일 마지막에요 출애굽기 말씀 찾아놓은것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2:26)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여호와의 편에 있는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나님이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편에 서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오라라는 거예요

이삭은 그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브엘세바를 버리고 그랄로 갔어요

원래 속마음은뭐였죠? 애굽갈려고 했던 마음이였잖아요

근데 그 그랄에 계속 머물러요

하나님이 그 그랄을 떠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고작 움직인게 어디예요.

그랄골짜기. 그니까 그 이삭 마음에는 두가지 마음이 늘 있었던 거죠

여차하면 애굽간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또 어기기는 싫으니까요

그 경계선에 계속 머물러있는거예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요. 그런데 그 이삭이 결국은 브엘세바로 돌아왔을때 모든 다툼은 끝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정말 내가 있어야 할곳에 있어야지만요, 그럴때 모든 다툼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는 이삭은 오래 참았어요

애매하게 고난받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고난을 참았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오해 받을때도 있고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때 이제 전도인들도 가끔 전도인 수련회를 하고 그러면, 이요한 목사님께 혼날때도 있어요

막 이런 오해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럴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도인이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전도인의 직무를 다해라

그러면 그 전도인을 판단하고 그 전도인을 정죄했던 그 형제나 그 자매가 아 내가 저렇게 성실했던 분을 진실했던 분을 내가 마음속으로 판단했었구나 알게된다는거예요

교회로 봉사하다보면 여러 가지 오해받는 일들 많잖아요

그럴때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

오래 참을수 있는 사람은 그게 가능 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였어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죠

그리고 누군가는 우리 분반이나 우리 교회학교 학생 누군가는 우리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고요, 하나님의 모습을 찾는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좋은 영향들을 줄수있는 선생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저희가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예수님이 강림 하실 날까지 길이 참으라는 하나님 말씀처럼 오래 참는 교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급이 있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으로 억울하고 애매하게 받는 고난들이 있다라면 잘 참고 견딜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힘들고 마음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있는 분들도 계신다라면 묵묵히 인내하는 가운데 교사의 직분을 감당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